

## 바이엘, 올해 1/4분기 최고실적 거둬

**바**이엘 그룹이 올해 1/4분기에 기록적인 좋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특별항목 계상전의 이자 지불전·세전이익(EBIT)이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된 12억3,600만 유로(전년동기 : 11억4,200만 유로)로 최고 실적을 올렸다.

독일 바이엘사 우웨닝 사장은 1/4분기의 실적에 대해 “바이엘 그룹은 2006년 힘찬 출발을 했다. 매출액은 11.8% 증가한 74억9,400만 유로(전년동기 : 67억400만 유로)로 통화 포트폴리오 조정후의 매출액은 5.8% 증가하였다. 이 견고한 성장은 특히 헬스케어사업 그룹(바이엘 헬스케어)와 소재과학사업 그룹(바이엘 머티리얼 사이언스)가 크게 공헌하고 있다. 또한 농약 관련사업 그룹(바이엘 크롭 사이언스)도 브라질의 엄격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높은 이익을 유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농약 관련사업 그룹(바이엘 크롭사이언스)은 매출액 17억7,100만 유로(전년동기 17억4,400만 유로)를 나타내 전년도의 좋은 성적

을 1.5% 상회하였다. 특별항목 계상전의 이자지불전·세전이익(EBTT)에 대해서는 3.5% 감소한 4억800만 유로(전년동기 4억2,300만 유로)가 되었다. 그 요인으로서 농약사업부의 시장환경 특히 프랑스의 시장환경이 좋지 못하였다. 프랑스에서는 현지에 대한 통화가 높음에 따라 농산물의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살충제와 살균제의 수요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 사탕무의 재배면적 축소로 인하여 제초제와 종자처리제가 예상보다 저조하였다. 좋은 성적을 낳은 톱10 제품에서 5.8%의 신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곡류용 살균제 「프로라인」과 「펜타곤」, 제초제 「아트란티스」 등의 최근 출시된 제품이 견고하였다. 농약사업의 매출은 14억1,300만 유로로 나타났다.

한편 인바이오사이언스와 바이오사이언스의 사업은 9.5% 증가한 3억5,800만 유로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제품과 채소 종자사업이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식물병원」설립, 관엽식물·농작물 병해충 상담

**동**경대와 법정대학이 지난 10일 식물의 병해충을 진단 치료하는 「식물병원」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관엽식물의 관리방법을 모르는 일반 가정이나 농작물의 병

해충에 대해 고민하는 농가가 그 대상이다. 우선 동경대는 2~3년 후에 설립한다. 양 대학의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연구소, 농협, 홈센터 등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한다.

식물병원에서는 농작물과 관엽식물 등의 병해충에 대해서 상담을 접수받는다. 우편으로 전달받은 식물의 사진을 가지고 처방전을 내고 심각한 상태의 식물은 입원시켜 치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양 대학은 치료나 진단이 가능한 「식물의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체제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동경대는 우선 금년도 「식물의과학」 강좌를

개설하고 법정대는 2008년도를 목표로 생명과학부를 신설하고 식물의과학과 설치를 추진한다.

동경대의 담당교수는 “고가인 관엽식물의 관리방법을 모르는 등 잠재적인 수요는 많다. 농작물의 비료나 농약의 「카르테 : 진료방법」을 만들어 먹거리의 안전에도 공헌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 중국, 대일 수출 확대 겨냥 농산물 배상보험 가입

**중**국의 농림수산성에 해당하는 농업부의 외곽단체인 중국 수산유통여가공협회(북경시)가 일본에 수출하는 농수산물에 배상 책임보험을 들었다. AIG그룹 산하의 AIU보험과 세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을 드는 것으로 일본 소비자의 불안을 불식하고 일련의 소비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정부가 배상책임보험을 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산 농수산물은 저가격을 무기로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합성 항균제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었다.

## 일본 분석연구소, 「수입식품 359농약 일괄 분석」 패키지 개발

**일**본 후생노동성 등록검사기관인 주식회사 큐사이 분석연구소는 올해 검역소 모니터링 검사대상농약에 조기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359 농약 일괄 분석」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대비한 잔류농약 모니터링 항목이 대폭 증대하여 5월 29일부터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 등의

잔류성분이 일정 함량 초과하는 채소, 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을 원칙 금지하는 「농약 등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동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4월초 검역소에서 발표하였다. 2006년도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 대상은 모두 448항목으로서 2004년도 대상 75항목, 2005년도 200항목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다.



## 중국, 농산물 품질안전추적시스템 도입

**전** 국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농산물 품질안전법 초안은 정부는 각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품질안전추적제도(Traceability)를 도입하고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품질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농산물에 대한 유통 과정을 밝혀서 책임을 법률에 근거 처벌하게 되어 있다.

초안은 다음 5종류의 농산물 관련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농약, 동물용 또는 기타 화학물질

을 함유하는 것 △농약, 동물약품 등의 화학물질의 잔류 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중국의 농산물품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 △병원성 기생충, 미생물 또는 생물 독소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안전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 △선도유지제, 방부제, 첨가물 등에 대해서 중국의 관련 제약(制約)성 기술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은 것 △기타의 농산물품질안전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 등이다.

## 일본, 전 농약 신제도 위반식품 판매금지

**일** 본 국내외에 유통되는 약 1천종류에 달하는 전 농약에 대해서 식품의 잔류기준을 설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5월 29일 발효되었다. 2003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완료하였던 조치로 농작물, 생선, 채소,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식품이 대상이 된다. 기준을 초과한 농작물이나 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일본정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식품안전성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래 식품위생법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약 250종류만이 잔류기준을 설정하였고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되었다.

이번에 발효된 신제도는 종래의 규제에 덧붙여 이제까지 기준이 없었던 농약에 대해서 새롭게 일률적으로 0.01ppm의 상한을 설정

하였다. 식품 1kg에 0.01mg 함유된 농도로, 유럽연합(EU)의 규제 등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 등 일부 식료수출국은 과도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는 현재 각 자치단체 주관으로 시장이나 소매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품은 후생노동성이 검역소에서 랜덤조사를 실시한다. 앞으로는 검사대상이 되는 농약수가 대폭 증가된다. 2002년도 지방자치 단체와 후생노동성이 합계 약 91만건을 조사하여 0.03% 해당하는 100건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잔류농약을 조사, 지난 2002년에 중국산의 냉동 시금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검출되어 판매 금지되는 등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라 위반이 증가되고 있다.

## 영국 바나나 품종 전멸?, 재배지서 병 만연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영국인이 좋아하고 있는 바나나가 그 인기품종의 재배지에서 전염병이 만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전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1950년대 영국에서는 「구로스밋셀」이라는 품종의 바나나가 소비되고 있었지만 토양중의 곰팡이에 의해서 바나나가 고사하는 파나마병의 발생에 따라 이 품종은 전멸되었다. 그 대신에 병 등에 강한 신품종 「기야벤데이쯔유」가 바나나 시장의 주력 품종이 되었으나 이 품종이 새로운 진균성 전염병의 피해를 받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염병은 더욱 공격력이 강한 변종의 파나마병으로 영국에 수입되고 있는 바나나의 주요 산지로 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는 확산되어 있지 않고 인도네시아, 타이완, 중국 남부,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생산지에서 심각한 사태를 일으킨다. 또한 중앙아메리카 바나나, 플랜테이션은 그 습기 때문에 구로지가도 병이 대 발생하여 바나나의 잎을 해치는 피해가 나오고 매주 농약 살포가 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일본농가 3,881호중 29호, 농약의 부적절 사용

2004년도에 농림수산성이 실시한 농약안전사용 실태 조사와 산지단체에서 농산물의 농약잔류실태 조사 결과가 2006년 5월 8일에 정리,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농약사용 실태조사는 농산물 판매농가 3,881호에 기록하였던 「농약사용기록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농약을 사용한 농작물 농약 사용량 및 희석배수, 사용시기, 사용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농가의 0.7%에 이르는 29호 농가에서 부적절한 사용이 인정되었지만 2003년도의 80호(조사대상 농사의 2.1%)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부적절한 사용의 내용은 △라벨에 표시된 적용 농작물을 확인하지 않고 농약등록상 적용이 되지 않은 농작물에 사용한 경우가 5건

△라벨의 확인부족 등에 의한 규정희석배수보다 진한 농도로 사용한 경우 5건 △라벨의 확인부족이나 오인에 의해 사용시기를 잘못된 경우가 2건 △농약사용 후 경과일수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경우가 7건 △같은 병해충에 동일 농약을 반복 사용하거나 유효성분의 총 사용횟수를 초과한 경우가 3건 △동일 유효성분 함유농약을 수종 사용하거나 유효성분의 총 사용횟수를 초과한 경우가 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약잔류 실태조사는 채소, 과일 558점, 차 124점에 대해서 잔류농약을 분석하였다. 잔류농약기준이나 등록보류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없었다. 농림수산성에서는 결과를 도도부현 등에 알리고 농약의 적정사용을 위한 농가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Y